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인물들에 대해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진의를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나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삼손이 전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인물들도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나 실수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도 예외는 아니어서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삼손이지만 그 역시도 실수를 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삼손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윗의 인생에 중대한 범죄였지만 그것으로 다윗의 전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이 죽어 장사되기까지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손이 사사로 지냈던 20년 동안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삼손의 사역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삼손의 어린 시절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로 '구별하다' '바치다' '헌신하다' 등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셔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23절에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어딘가에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이러한 구절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쩨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라는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이신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시게 될 것은 성경학자들의 이러한 설명보다는 바로 '나실인'과 더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원어에 가까운 말로는 '나자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영원한 화목제물로 구별되어 오신 진정한 나실인이신 예수님께 더 합당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사기 13장24절은 삼손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두 번째는 삼손의 수수께끼와 연관이 있습니다. 삼손이 딤나의 포도원에 갔을 때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죽은 사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곳에 보니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삼손의 결혼식 잔치에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는 아무도 맞힐 수 없는 허무맹랑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포식자(먹는 자) 중에 가장 강한 사자에게서, 먹는 음식 중에 가장 단 맛을 내는 꿀을 얻었다' 즉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문제 안에 답이 있는 잘 짜여진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수께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손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아 먹는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자를 죽일 때에만 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를 잡아 먹어 멸망하여 죽게 하는 죄를 죽일

때만이 영적인 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나의 죄를 우리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줄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를 회개하여 죄를 죽인 사람에게 천국이라는 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삼손이 여우 삼백 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워 버렸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삼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15장3절 말씀입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는 여우 삼백 마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단과 밭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살랐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경제적인 근원들을 없애 버린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좋아하는 재물의 근원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재물을 가장 좋아하고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힌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이 있는 에담 바위 틈으로 피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삼손은 그런 유다 사람들을 블레셋에게서 구해내려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도와 블레셋을 함께 물리쳐야 할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 홀로 외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삼손이 두 손을 결박 당하여 레히로 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셔서 삼손은 그 손을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 버리고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 들어 천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한 낫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천사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1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또 한가지는 삼손이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를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우리 주님을 연상시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분의 성도와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16:18).

마지막으로는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릴 때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삼손을 잡아 조롱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삼손을 자신들의 원수라고 부르며 자신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 마귀도 똑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면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 승리하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여자의 후손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창3:15).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사탄 마귀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습니다(눅10:18). 그리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고전15:55). 사탄 마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동안 우리가 삼손을 오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오히려 삼손의 전체 인생과 사역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곧 삼손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약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분을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